

「공공장소에의 흡연은 금지해야만 한다」

요즘, 길거리나 커피숍, 공원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미 담배는 사람들의 기호품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대상범위도 넓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아무런 규제없이 내버려 뒀도 좋은 것일까. 나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커피숍에 가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고, 커피숍 안은 담배연기로 자욱하다. 만일 그 커피숍이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라면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랜시간 앉아있으면 연기 때문에 피롭고, 숨이 막혀오는 것을 금새 느낄 수가 있다.

비록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는 규제해야만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는 신경을 써야만 한다.

다음은 모두가 알고있는대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미 담배는 목과 폐에 매우 나쁘다는 것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같이 담배연기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한다. 특히 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비해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해야만 되는 것이다.